



경력전환교육 수강후기 - 품질/안전 및 용접재료 분야 교육을 중심으로 -



김정준

품질관리 기술사/전 두산중공업 부장

- 2021 경력전환교육 품질/안전 분야 수료
- 2021 경력전환교육 용접재료 분야 수료

2021년 4월 말 회사 후배로부터 한국 원자력산업협회(협회)에서 주관하는 <퇴직자, 재직자 경력전환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였습니다. 내용인즉, 원자력분야 매출 발생 기업 또는 공기업 및 주요기관 공급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 퇴직자와 재직자가 미래 유망분야 진출을 위한 경력 전환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었으며, 저 또한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여 경력인력 작성용 지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할 때는 신청분야를 지정해야 했는데, 저는 대학 전공에서부터 입사 후 지금까지 배운 품질 분야와 최근 중대재해법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분야, 중공업 회사에 다닐 때 항상 듣고 관리하던 분야이지만 학문적 배경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던 용접/재료분야를 지정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품질/안전 및 용접/재료 분야에 신청을 하긴 했지만, 원자력분야처럼 광범위하면서 특수한 분야, 즉, 넓으면서도 좁은 분야에 대한 교육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는 않았습니 다. 또한, 신청 후 바로 관련 교육이 시작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신청 후 잠시 잊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청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협회에서 ISO 경영시스템 인증 심사원 과정 및 ISO 9001(품질)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메일이 와서 협회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업무 진행에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품질관리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이 인정되어 품질관리 기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준비 중이었는데 이 과정이 많은 도움이 될 듯하여 바로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원자력 관련 업무는 자체 품질관리시스템인 KEPIC이 있으나,



5월 17일부터 6일간 키와코리아 교육장에서 품질/안전 교육이 진행되었다.

ISO 같은 경우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품질관리/경영 시스템인지라 한번 배워 볼 필요도 있었습니다. 또한, 1990년대 말 회사에서 ISO 감사를 받은 적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접해 보지 못해 ISO 9001:2015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새롭게 배워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ISO 인증 심사원 과정 및 ISO 9001(품질)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교육을 신청해 이수하였습니다. ISO 인증 심사원 및 ISO 9001 대면교육은 품질 인증 전문업체인 '키와코리아'에서 5월 중순에 받았는데 2015년 개정된 ISO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심사할 경우 어떤 판정을 내릴지를 두고 실습을 병행하였는데 이 또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육 중에는 협회 담당자들이 배석하여 교육

을 받는 저와 같은 경력 전환 인력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는지 항상 물어보고 미리미리 준비하였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도 협회 담당자들이 교육 시 좋았던 점 미흡했던 점들을 문의하면서 미흡했던 점은 차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나 향후에 이런 교육을 받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협회에서는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ISO9001과 45001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수강생들은 품질과 안전에 관한 교육이 모두 필요하고, 두 분야의 모든 교육을 받는다면 교육에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조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 6월에는 원자력 용접 및 재료교육(용



접/KEPIC,ASME Code)을 신청해 이수하였습니다. 부산 동의대학교에서 시행된 위 교육은 6 일짜리 교육으로 기초 용접공정(2일), 용접 야금 및 용접 결함(2일) 용접과 관련된 KEPIC/ASME Code(2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중공업 업계에서는 작업의 시작과 끝이 항상 용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용접이 일 상의 다반사를 이루지만, 개인적으로는 용접이 라는 분야에 학문적으로 접근할 기회가 없었을 뿐더러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관련 Code나 법규, 과거 사례를 찾아보았을 뿐 체계 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동의대학교에서의 교육은 교수님과 한국재 료연구소(KIMS)의 박사급 연구원분들이 수고 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용접 공정과 야금 분야 를 설명해 주셨고, KIMS 연구원분들은 각각의 Code와 관련 사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육 내용도 좋았을 뿐 아니라 교육받는 분들 도 다들 이러한 교육에 목말랐던지 질문이 무척 많이 있었고, 그래서인지 교육받는 사람들 간 토 의도 많았습니다. 또한,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 들이라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거나, 관련되는 사 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교육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 또한 교 육장에서 같은 회사 근무하던 선배를 만나 많은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었습니다.

ISO 교육은 품질 시스템이라는 넓은 분야를 다루는 교육인 반면, 용접공정과 야금, Code 교

육은 원자력에 대한 좁고 깊은 분야의 교육이었 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1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대 면 교육 또한 줄어들게 되어 협회에서 계획했던 교육과정이 연기되는 우여곡절이 있었던 듯합 니다. 당초에는 특정 장소를 물색하여 대면 교육 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교육이 아닌 줌 강의로 대체되면서 교육이 연기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ISO 9001 품질교육 수강 종료 후 수강생들은 품질뿐만 아니라 안전 교육도 필요하다고 의견 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협회에서 사전에 계획된 교육만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이어서 안전에 관한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 으로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의 의견을 적 극적으로 반영하여 협회에서는 품질교육을 받 은 사람들에게는 안전교육을, 안전교육을 받았 던 사람들에게는 품질교육을 교차로 받을 기회 를 제공했습니다. 저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 장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안전에 관한 법규, 절차, 시스템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ISO 45001 강의를 신청해서 수강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대면 교육이 아닌 줌 교육이었다 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교육을 많이 하기도 받기 도 하였지만 역시 교육은 강사와 수강생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호흡을 같이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의 사정상 그러지 못했다



6월 1일부터 11일까지 동의대학교 용접인력양성센터 교육장에서 용접 및 재료교육이 진행되었다.

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교육은 철저한 출결관리뿐 아니라 교육 내용의 전달에서도 대면 교육 못지않게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 완료 전에 치러진 안전 시스템에 대한 자격 부여 시험은 오프라인으로 시험 보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돼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시간 규제, 시험 내용 등 대면 교육과 차이를 느끼지 못할 만큼 정확하고 정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ISO 9001 교육과 45001 교육, 용접분야의 교육 내용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품질관리 기술사 시험과도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내용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저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각각 합격하여 품질관리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원자력 산업이 위축되어 자의로 혹은 타의로 업계를 잠시 떠난 분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분들은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사회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낭비이므로 이러한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회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러한 제도를 알게 된 건 당시 우연히 제게 걸려온 후배의 전화 한 통 덕분이었습니다. 후배의 그 전화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이런 훌륭한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퇴직자, 재직자 경력 전환 지원사업과 같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홍보 강화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이



러한 정보를 접하지 못했고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찾은 타인의 정보를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연배가 있는 사람들로 많이 접근하는 facebook, twitter 같은 SNS를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자력분야에 있는 사람들 간에는 친구로 지정된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들이 보는 분야에 이러한 교육과정에 관한 정보가 한두 번 노출된다면 이들에게도 해당 정보가 함께 노출되므로 홍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로 과정관리 강화입니다. 교육 수강생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아마도 원자력 분야에서 가깝거나 약간 먼 미래의 잠재성을 생각하며 이러한 교육을 수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수강생들의 정보에 대한 상세 분석과 더불어 이분들과 미래를 함께하고자 하는 기업을 이분들과 매칭해 주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원자력업계는 한두 명 건너면 모두 다 안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원자력 업무는 그 특성상 넓게 알아야 하는 분야인 동시에 그 누구보다 깊게 알아야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즉 개인과 회사 간의 매칭은 개개인의 전문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와 더불어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뒷받침되어야만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실무교육으로의 교육 내용 다변화입니다. 협회에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올해 품질, 안전, 용접, 해체, 사업관리 등의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교육을 수강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받은 교육은 실무 전문가의 교육이라기보다는 교수, ISO심사원, 박사급 연구원 등 이론분야 전문가의 교육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교육은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유리할 수 있다만, 실무적인 경험을 전달하는 데는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원자력업계에서 특정 분야의 실무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육의 효과는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실무 전문가분들이 지닌 인적 인프라를 이용하여 앞의 두 번째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이란 단지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가 되기도 한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협회가 주관하고 진행하는 교육과정이 저를 포함한 많은 수강생의 삶에 방향성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KMIF**